"아이티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모금함에 달려오는 광주시민들 보며 '가슴뭉클'

아이티 참사 적극 도와 '민주도시' 역량 떨쳐야

월드비전, 아름다운 가게,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등 아이티 돕기 광주시민사회단체모임은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구호기금 모금 활동을 펼쳤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수십만 명 사상자와 전체 국민의 3분의 1인 3백 만명 이상 이재민을 낸 대지진 참사현장을 TV,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건물의 붕괴로 식량, 식수, 의료, 통신, 도로는 물론 경제, 사회활동 마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까지 아비규환 그 자체인 것 같다.

광주 5·18 현장을 목격했던 세대로써 그 상황을 이루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적 금융위기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분위기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티 참사만큼은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도움이 절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지원협력과 유엔을 비롯한 각 나라의 지원과 협력은 물론 국제 구호 NGO 단체들의 현지 활동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5·18정신이 살아숨쉬는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이티 국민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더 가슴이 아려왔다.

지난 주말에 마침 가족과 함께 광주 우체국 앞을 지나가던 길에 아이티 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또한 그 앞에 놓인 참혹한 아이티 매몰현장 사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흥분되어 즉석에서 메가폰을 잡고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아이티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단돈 천원이 아이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외치고 또외치면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모금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시민들, 특히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주머니에서 1천원씩, 1만원씩 꺼내들고 모금함에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광주시민이구나" 하는 생각에 어찌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른다.

나라와 피부색은 달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 광주 , 5·18 정신이 아직 살아 숨쉬는 광주, 밝은 미래가 보이고 건강한 꿈이 살아있는 광주'라는 생각에 광주의 희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느낄 수 가 있었다. 짓궂은 날씨에 춥고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보람찬 하루였다.

아이티 돕기 모금행사를 함께해준 월드비젼, 아름다운 가게,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20여 광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월드비전은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펼칠 것이며,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해 자체 수집한 물품을 직접 판매해서 남은 판매수익금 전부를,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는 시민 단체와 종교시설들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아이티 돕기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신 계신 광주·전남지역 지도자들이 나서 이번 아이티 대지진 참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방법을 물색하고 봉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겠다.

곧 다가올 여수엑스포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적 행사가 준비돼 있는 이때이번 모금·구호 활동으로 광주·전남이 국제적으로 발돋움 할수있는 기반이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김영준·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자원봉사단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경로당·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계층 찾아 도시가스시설

무료 시공해 주는 '가스사랑협의회'의 이웃사랑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민간봉사단체 '가스사랑협의회'는 광주시 서구 화정1동 내방경로당에 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가스시설을 무료시공했다.

민간봉사단체가 지역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시설 무료 시공사업을 펼치고 있어 한겨울 훈훈함을 더 해주고 있다.

순수 봉사 단체인 '가스사랑협의회'(회장 김유원 상산산업개발 대표)는 최근 화정1동 내방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무료로 시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됐다.

1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가스사랑협의회는 광주·전남 가스시공업체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틈틈이 짬을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을 대상으로 가스설비를 무료로 시공해 주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가스사랑협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구 상무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 '사랑나눔 1호점'을 탄생시킨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19세대를 대상으로 1천100만원을 들여 가스시설을 무료로 시공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4월까지 2천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화정중앙경로당, 장락경로당, 화당경로당, 쌍학경로당, 해태맨션 경로당 등에 연달아 도시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매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은, 서구청과 ㈜해양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받아오고 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이처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스사랑협의회에 주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광·광주시 북구 용봉동

클릭! 맛집

제철 생선과 만나는 '미각여행'

5년간 간수 뺀 소금만 사용…비린내 사라지고 살점은 탱탱

■담양군 고서면 생선구이전문 '대가'

짜디 짠 생선구이 먹고, 종일 물 마셔 '올챙이 배'가 된 식객에게는 광주댐 휴게소 맞은편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124번지 대가(업주 윤기호)를 추천한다. 이곳은 3~5년 동안 간수를 뺀 신안 비금도 천일염을 써 짠맛이 덜한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때묻지 않은' 맛집이다.

광주댐이 한눈에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연기를 피워가며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생선구이 냄새가 먼저 식욕을 자극한다.

강원도에서 매일 공수해 온 고등어, 삼치, 꽁치, 조기, 갈치, 병어를 입맛에 맞게 골라 갓 지은 돌솥밥에 먹을 수 있다.

국내 식당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생선은 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동을 하느냐가 고기 육질을 결정한다. 이 집은 이 과정에 하루 품을 판다. 생선을 그냥 녹이지 않고 매실, 진피, 석류, 당귀, 하수오, 복분자, 뽕잎, 솔잎 등을 넣은 비법 육수에 24시간 넣어 둔다.

얼었던 생선이 서서히 녹으면서 비릿한 맛이 사라진다. 또 살점이 탱탱해진다.

적당하게 굵은 소금을 뿌려주는 게 안동간고등어의 맛을 결정하듯, 이 집 생선구이 맛도 소금이 비결이다. 충분히 간수를 뺀 천일염에서는 단맛과 고소한 맛이 난다. 깨끗한 소금과 적당한 온도의 불이 만나 밥도둑 생선구이를 만들어 낸다.

돌솥에 나주평야 쌀로 밥을 지어 내온다. 훈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에 생선 한 토막 얹어 먹으면 산해진미가 따로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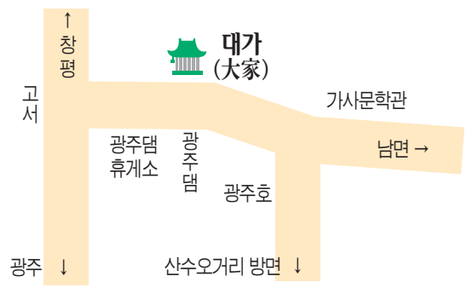
강원도 산골 묵은지, 직접 담은 겉절이, 마늘 장아찌 등 신선한 재료에 푸짐한 인심 버무린 밑반찬도 깔끔하다.

생선을 꺼려하는 아이들은 돼지 앞다리를 잘게 다져 먹기 좋게 구워낸 떡갈비를 추천할 만 하다. 생선구이 8천원, 떡갈비 8천원. 문의 061-383-7050.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떡갈비〉

■찾아가는 길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9급 공무원 학원
2월1일 시작반 현재 수강예약 접수중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외길십다. 특강은 공무원 대우. 채용인원과 시험기회가 많다.
임용고시 보다 교육행정직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사대생을 위한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급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